

논습지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 상주 공검지 사례를 중심으로 —

임충규** · 김연희*** · 노용호****

The Rice Paddy Wetland Ecotourism Resources and Suggestions : A Case Study of Sangju Gonggeumji*

Lim, Chung Gyu** · Kim, Yean Hee*** · Roh, Yong Ho****

요약 : 본 연구는 람사르협약에서 제창하는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요 논습지인 상주 공검지를 대상으로 공검지의 생태자원과 농경문화를 체계화하여 통합적인 논습지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성 확보와 그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공검지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3대 인공 저수지 중의 하나로서 풍부한 농경문화를 보존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의 논습지생태관 조성을 통한 논습지 생태관광의 거점화가 가능하다. 특히 낙동강과 백두대간의 최집경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생태관광자원을 네트워킹하고, 고령가야국의 역사체험을 위한 역사여행, 자전거를 활용한 레포츠관광, 민요마을의 전통 민요 체험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수 있다.

주요어 : 논습지, 공검지, 생태관광, 문화관광, 람사르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d suggesting plans for the Gonggeumji rice paddy wetland ecotourism with ecological,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Compare to previous other ecotourism resources including insects, birds and other ecological resources, this study used rice paddy wetland as ecotourism resources. The wetland ecotourism could be more promoted with networking of resources, historical experiences of Goryung Gaya Kingdom, leisure sports tourism with bicycling, the residents/cultural resources including traditional folk song village experiences.

Key Words : rice paddy wetland, Gonggeumji, ecotourism, cultural tourism, Ramsar

I. 머리말

‘환경’과 ‘생태’에 대한 관심과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관광 수요자의 관광 행태도 변화시키고 있다. 기존의 명승지 중심의 관람에서 관광객의 기호, 흥미, 취향, 체험, 교육활동 등을 통해 내재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생태, 문화, 체험, 녹색관광 등의 대안적 관광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과 관광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생태관광은 관광객과 지역사회로 하여금 자연과의 공존을 지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연 10~15%의 빠른 성장률(최정수, 2003)

을 보이고 있다.

상주시 공검면에 위치한 공검지는 제천의 의림지, 김제의 벽골제와 더불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3대 인공저수지 중의 하나이다. 공검지를 중심으로 발달된 농경문화는 고령가야국과 사벌국 등의 고대 성읍국가 부흥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는 공검지가 이미 이 시기에 우수한 관개시설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공검지는 그 자체로 훌륭한 논습지 생태·역사문화 관광자원이다. 공검지의 생태자원과 농경문화를 체계화하여 통합적인 논습지 생태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여 관광효과를 통한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 이 논문은 2009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생태관광전공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Ecotouris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cglm@knu.ac.kr)

*** 경북대학교 생태관광전공 강의교수(Lecture Professor, Department of Ecotouris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agria97@knu.ac.kr)

**** 우포늪관리사업소 연구관(Upo Wetland Ecology Center Senior Researcher)(yhnoh11@korea.kr)

지금의 공검지는 일부의 터만 남긴 채 대부분 농경지로 사용되어 문헌자료 속의 웅장한 규모는 사라져 버렸다. 다행히 2000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최소한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공검지복원공사를 시행중에 있다. 공검지를 복원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인간이 훼손함으로써 입게 된 유무형의 손실을 깨우치게 되며, 생태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생생한 현장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공검지의 찬란한 역사를 빛내며, 생태도시 상주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공검지를 논습지 생태관광 개발의 축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개발방향의 설정이 필요하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생태관광 콘텐츠의 개발도 아울러 모색되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가장 우수한 습지인 논이 현명한 이용을 통해서 논이 가진 생산적 가치와 더불어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공검지에 [한국논습지생태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생태관은 논농사학습과 체험, 논습지의 중요성, 농경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한 학습장소로 제공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공검지 관련 연구들은 주로 공검지와 관련된 역사, 문학적 측면(권태을 등, 1995; 박찬선, 2007; 김기탁, 1994)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농경문화, 민속자원, 논습지, 연꽃 등의 생태 및 농경문화자원과 채련요, 한시 등의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여 공검지를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한 통합적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의 생태관광에 관한 학문적 관심도 생태자원을 활용한 축제(김영미 등, 2007; 여영숙, 2009; 이충기 등, 2011), 개별 생태계(곽행구 등, 2008; 김홍균, 2002; 홍선기, 2009), 생물종 복원(노용호 등, 2010), 생태관광객의 태도 및 만족도 평가(김진·고동환, 2011; 문창현, 2009; 오민재·이소연, 2008; 오남현, 2008)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논습지의 생태관광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 논습지인 공검지를 대상으로 공검지의 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지속적 발전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오랜 역사와 농경문화를 간직한 공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태, 역사 문화관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생태관광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과 문화적 활동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것이며, 결국 콘텐츠의 차별화와 네트워크화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와 현지조사로 이루어졌다. 2009년 6월부터 9월까지의 현지조사를 통해 생태관광 수행에 필요한 자연환경적인 여건, 관광인프라, 연계 가능한 주변 관광시설 등을 확인하였다. 생태관광 명소로서 성장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이 풍부한 공검지를 어떻게 관광가치로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주요 논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검지의 역사와 문화에서 발견되는 특성을 논습지 생태관광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간의 공검지 복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생태관광의 기본정의와 특성 및 원칙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개발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공검지의 생태자원과 '채련요' 등의 우수한 농경문화, 고령가야국의 유적에 나타난 역사문화적 특성 등 생태관광을 위한 자원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공검지 생태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생태관광 네트워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즉 공검지 주변의 생태관광 자원의 연계, 낙동강, 백두대간 등 생태와 녹색성장의 중심축에 위치한 상주의 이점을 살려 이들 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공검지를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상주시는 상주가 가진 농업도시의 전통성 강화와 자전거, 곳감 등과 더불어 공검지의 생태 및 역사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논습지 생태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II. 공검지 논습지 생태관광개발의 기본방향

1. 습지의 정의 및 중요성

1971년,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인 람사르협약¹⁾에서 습지를 지키자는 사항이 제창되었다(환경부, 1997). 습지는 육상과 수생 생태계의 전이지대로서 종류가 다양하므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는 없는 가운데, 각국에서는 풍토에 따라 형성된 습지의 특성과 습지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달라 여러 가지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습지보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습지”란 담수,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말한다. ‘내륙습지’라 함은 육지 또는 섬안에 있는 호 또는 호와 하구 등의 지역을 말한다. ‘연안습지’라 함은 만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람사르협약에서는 “천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임시적이든, 물이 정체되어있든 또는 흐르고 있든, 담수(淡水), 기수(汽水) 또는 염수(鹽水)든지, 간조(干潮) 6 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깊이의 해수 지역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또는 물로 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습지는 물의 원천, 우점식생, 이탄(peat)의 유무, 범람시기, 분지(basin)유역형태 등에 따라 다양하

게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해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 또는 swamps, marshes 및 bogs로 구분하기도 한다(Dennison and Berry, 1993; Lethier, 1993). 우리나라가 가입한 OECD와 Ramsar 협약에서 추천하는 분류들은 각각 <표 1> 및 <표 2>와 같으며, 람사르습지에 지정된 국내 습지는 모두 16개소, 면적 145,455km²로서 <표 3>과 같다.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근원지이며 무수한 동식물종의 생존을 위한 근거지이다. 생물적, 생태적, 환경적으로뿐 만 아니라 수리적, 경제적으로도 그 보존이 매우 중요하며 특징적인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습지의 제한된 환경에서만 생존하는 생물은 습지가 훼손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 습지 생물들에게 고유한 서식지를 제공한다. 둘째, 습지는 ‘생물적 슈퍼마켓(biological supermarket)’이라고도 한다. 이는 습지가 다양한 동식물들의 집단 개체군들을 부양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절히 활용하면 서식하는 생물들의 수확과 생태관광 등이 현지주민들에게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도 있다(OECD, 1996). 셋째, 물 환경 가치로서 습지는 “자연의 신장(腎臟; nature's kidney)”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내륙으로부터 유입되거나 습지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정화할 뿐 만 아니라 인간생활은 물론 생태계의 유지에 필요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다.

표 1. Ramsar 추천 습지분류

구 분	종 류
Salt water(염수)	Marine, Estuarine, Lagoonal, Saline(Internal Drainage)
Freshwater(담수)	Riverine, Lacustrine, Palustrine(Marshes/Swamps)
Man-made Wetlands(인공습지)	Aquaculture/Mariculture, Agriculture, Salt Exploitation Urban/Industrial, Water Storage Areas

표 2. OECD 습지분류

구 분	종 류
Marine and Coastal Wetlands(해안습지)	open coastals, 산호초, 연안(estuarinea), 갯벌(tidal flats), mangrove forests와 coastal lagoons를 포함
Inland Wetlands(내륙습지)	영구적 및 계절적 하천(river), 내륙 삼각주와 범람원, 영구적 및 계절적 호수와 연못(lakes and ponds), marshes, 담수, swamp forests 및 peatlands(미탄지)를 포함
Artificial Wetlands(인공습지)	저수지, barrages와 댐, 양식장, 구덩이(excavations and borrowpits), 폐수처리연못과 관개수로, 천연수로(도랑)와 논을 포함

표 3. 우리나라 람사르 습지 현황

지역명	위치	면적 (km ²)	특징	지정일자
대암산습지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1.06	회귀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국내 유일의 고층습원	'97.03.28
우포습지	경남 창녕군 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 일원	8.54	큰부리큰기러기, 가시연꽃 등 다수의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하는 국내 최대의 자연습	'98.03.02
신안장도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장도(섬) 일원	0.09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보전된 도서지역 산지습지	'05.03.30
순천만·보성갯벌	전남 순천시 별양면·해룡면·도사동 일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	35.5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며 수산자원 풍부	'06.01.20
제주 물영아리오름습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0.309	물장군과 맹꽁이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식생경관을 지닌 화구호습지	'06.10.18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0.04	끈끈이주걱, 꼬마잠자리 등 회귀 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이탄층이 잘 발달된 산지습지	'07.12.20
두용습지	충남 태안군 원동면 신두리	0.065	회귀야생 동·식물 서식하고 해안사구 배후에 형성된 사구습지	'07.12.20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35.89	생물다양성 풍부하고 지질학적 보전 가치가 있음	'08.01.14
오대산 국립공원습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항빙산늪, 질피늪),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0.017	멸종위기종 서식하고 이탄층 잘 발달된 산지습지	'08.10.13
강화 매화마름군락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003	매화마름, 금개구리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국내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논습지	'08.10.13
제주 물장오리오름습지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28	팔색조, 삼광조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이탄층 발달한 산정 하구호습지	'08.10.13
제주 1100고지습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광령리	0.126	멸종위기종 및 회귀종이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습지	'09.10.12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	15.3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 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 (검은머리물떼새)	'09.12.02
고창·부안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심원면 일대	45.5	다수의 멸종위기종 조류 및 전세계 물떼새 개체수의 1%이상이 서식 (흰물떼새)	'10.02.01
동백동산습지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지하수함양률이 높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자왓지역	'11.03.14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797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종 수달 등 서식	'11.04.07

출처: 환경부 <http://www.me.go.kr/> (201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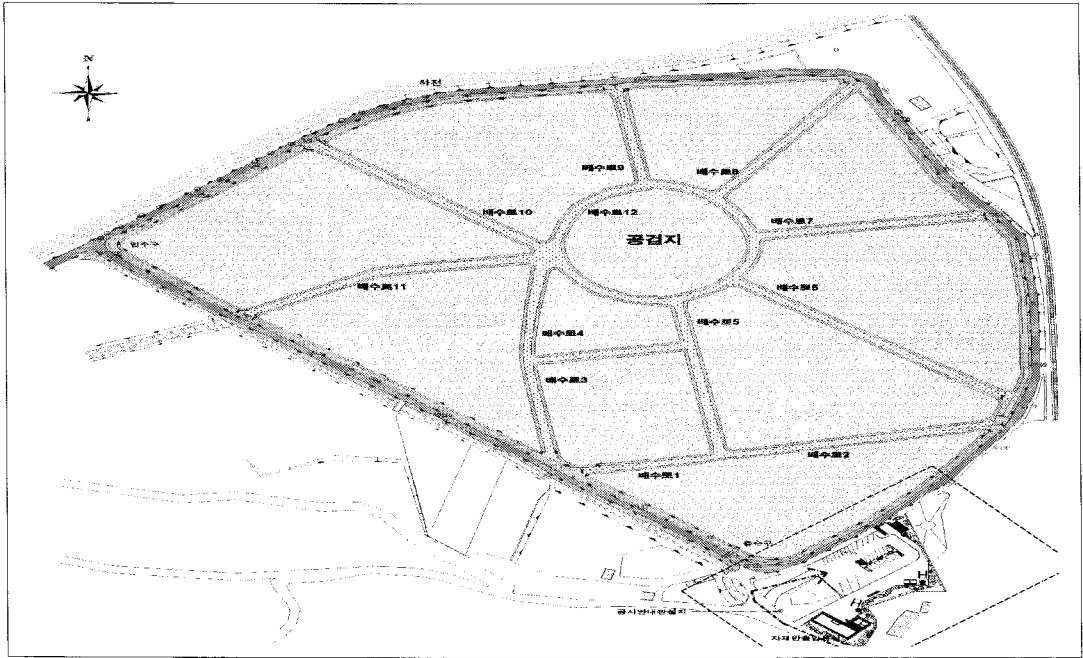


그림 1. 공검지 복원 계획 현황도

습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산적이며 생명력이 왕성한 수생생태계의 복합체로서 습지생태계는 독특한 관광, 교육,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습지는 인류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특별한 기여를 한다. 종교와 우주론적 믿음, 심미적 영감을 구성하고 야생동물 보호지역을 제공하고 지역전통의 근간을 이룬다. 이러한 기능, 가치 및 기여는 습지의 생태적 과정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때에만 유지될 수 있다.

특히 논은 문순아시아지역에서는 6천년 이상이나 된 인공습지로 인간의 식량을 제공하던 공간일

뿐 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이며 철새의 월동지로서 중요한 습지생태계이다. 향후 각 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협약²⁾에 따라 농업의 생물다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포함하도록 현행의 전략을 재검토하며 명확한 일정에 맞추어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책임과 예산을 확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 습지는 지속적인 배수, 변환, 오염과 자원의 남용으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위협받고 있는 생태계이다(Williams, 1992).

표 4. 공검지 복원 정비사업 내역

계획년도	사업내역	계	제1단계 (2000~2005)	제2단계 (2006~2010)
계		6,510	1,700	4,810
2004년	부지매입, 시굴조사	1,000	1,000	
2005년	부지매입, 발굴조사, 주변정비	700	700	
2008년	부지매입, 연꽃보식	1,200		1,200
2009년	탐방로설치, 발굴조사	2,100		2,100
2010년	역사관건립, 발굴조사, 부대시설	1,510		1,510

출처: 상주시 문화관광과(2010)

2. 공검지 복원사업의 성과와 과제

공검지는 도지정문화재 기념물 121호(1997.9.29)로 공골지(空骨池), 공검지(恭儉池), 경호(鏡湖), 남호(南湖), 검호(儉湖) 등의 이름으로도 불리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저수지 중의 하나이다.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분지속의 늪을 사람의 손으로 약 430m 길이에 이르는 못 독을 쌓아 만든 저수지로서 둘레가 약 9km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의 저수지다. 공검지는 그 역사성, 축제기술 뿐만 아니라 공검지와 관련된 민요, 전설, 한시 등 많은 자료를 남겨 문화적 가치도 매우 우수한 곳이다.

상주시는 유교문화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하여 공검지 복원·정비에 총사업비 6,510백만원(국비 3,255, 지방비 3,255)을 들여 2004~2010년 사업기간동안 부지 124,905㎡, 못 역사관 229㎡, 연지 탐방 데크, 생태공원 및 주차장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공검지는 고대 농경문화의 상징이며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것에 안타까울 뿐이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공검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원한 공검지에는 공검지의 상징인 연꽃을 심어 볼거리를 제공하며, 못 역사관에는 발굴시 나온 유물의 전시 및 공검지의 역사를 현눈에 볼 수 있도록 건립될 예정이다

공검지 복원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목부재의 발견에 있다. 공검지는 축제연도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던 터였다. 목부재는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2008년 4월 공검지 정비를 위한 제방성토공사 중 저수지 내부 퇴적토 일부를 굴착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다. 발견된 목부재는 탄소연대추정의 결과 AD655~695년의 결과치(충북대, 2009)를 보임으로써 공검지의 역사성과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공검지 복원사업을 통해 문화자원 훼손에 대한 경각심과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이제 공검지의 생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현재, 공검지 활성화와 관련 의욕있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한 민간단체인 공갈못복원추진위원회, 공갈못문화연구회 등이 앞장서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뚜렷한 성과나 발전을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공갈못문화연구회에서 복원된 공검지에 심은 연꽃이 활짝 피는 7월 말 경에 연꽃문화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면 공검지와 관련된 문화행사는 전무하며, 상주시의 행정적 지원도 따르지 않고 있다.

농경문화를 보존 전승하며 아름다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프로그램의 운용과 공검지를 거점으로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적절하게 활용한 생태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3. 공검지 생태관광개발의 기본방향

1) 생태관광의 특성

생태관광의 등장은 생태주의적 마인드가 확산되고 라이프스타일의 주요 관심 키워드가 ‘환경’과 ‘생태(eco)’로 귀결되어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면서 부터이다(오정준, 2003).

생태관광의 정의와 특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는 1983년 환경보전주의자인 세바우스 라스쿠라인(Hector Ceballos-Lascurain)에 의해 조여된 이래 지구 생태계 보전의 필요성 증가, 자연을 찾는 관광객의 급증, 생태계 훼손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대중관광에 대한 반성, 그리고 관광의 과급효과에 대한 인식 증대에 힘입어 전 세계적 관심을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천수단으로 급부상하였다. 생태관광은 환경 및 관광 두 분야에서 단기간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 학자들은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면서 나름대로 생태관광의 정의를 규정하였다.

세계생태관광학회(TIES)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자연지역으로의 책임 있는 여행”으로 정의하였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자연(과거와 현재의 관련 문화자원 포함)을 즐기고 감상하기 위해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지역으로의 환경적으로 책임있는 여행이나 방문으로서 보전을 증진하고, 부정적 이용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며, 지역주민에게 사회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관광”으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의 생태관광 개념정의는 “생태계 우수 지역의 자연 및 관련 문화 자원을 관찰, 감상, 이해, 체험하기 위한 개별 관광객 또는 소규모 단체 관광객의 여행으로서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관광”으로 정의하고 있다(김성진, 2002).

생태관광은 자연이 생태관광의 근본이 되므로 자연보호 및 보전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는 자연에 바탕을 둔 관광, 자연의 재생 회복이 무시되는 적극적 개발이 용인되지 않는 관광(Al-sayed et al., 2003)으로 최소한의 피해와 훼손만이 용인되는 소극적 관광,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체험하고, 학술적 교육적 문화적 내용이 강조되는 관광으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있고 문화수준이 높은 층에서 주로 이용되는 교육적 관광, 자연속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모험 형식의 사파리 형태의 모험관광, 자연자원과 인문자원의 결합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구호·김농오, 2009).

한편 세계관광기구(WTO)와 유엔환경계획(UNEP) (Eper, 2002)은 생태관광을 관광개발 및 관리의 원칙이면서 동시에 특정 관광시장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념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연지역에서 널리 유행하고 전통적인 문화자원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의 관찰 및 이해를 관광의 주요 동기로 하는 모든 자연 기반의 관광형태이다. 둘째, 교육 및 해설적인 특성을 포함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소규모 관광객 집단을 대상으로 지방의 영세적인 관광사업체가 조직하며, 넷째, 자연생태계 및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야 한다. 다섯째, 다음과 방식으로 자연지역의 보호를 지원한다. ① 자연지역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민간기관, 정부당국의 경제적 혜택을 창출한다. ② 지역사회에 대안적인 고용 및 소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③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연 및 문화자산의 보전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킨다.

한편, 생태관광의 고유원칙에 관해 세계생태관광총회(WES)에서 채택된 ‘생태관광퀘벡선언(Quebec Declaration on Ecotourism, 2002)에서는 첫째, 자

연 및 문화유산의 보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둘째, 생태관광의 계획 개발 운영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하며, 셋째, 관광객들에게 목적지의 자연 및 문화 유산을 해설하며, 넷째 개별 여행객과 소규모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으로 명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자연 및 문화자원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며 지역의 문화를 즐기고 감상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 지역의 환경과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일련의 관광활동이다.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을 대상으로 한 단순향락과 휴식만의 관광이 아니라 환경보전과 교육적인 부분까지를 포함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경제적 혜택이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고찰된 생태관광의 정의, 개념적 특성, 고유원칙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생태관광의 개발 방향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가치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환경적 가치는 생태관광의 가장 근본적인 추구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 지역사회의 전통·관습·생활수준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관광행위를 하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가치는 생태관광을 지역활성화를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이다. 생태관광으로 인한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고용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교육적 가치는 생태관광이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일 것이다. 즉 자연환경의 관찰·이해·체험기회가 단순 일회성, 오락성 체험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해설을 위한 전문안내자 육성, 생태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해 체계적 환경교육의 가치를 달성할 수 있다.

2) 공검지 생태관광개발 방향

공검지 생태관광의 근본적인 성패는 생태관광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고 주체

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생태관광 전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주민과의 동반자적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생태관광개발 방향을 선택함으로써 생태관광으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편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지향적인 관광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문창현, 2007). 또한 공검지를 보다 가까이에서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보존 보전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규모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을 단순히 이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환경과 관광개발을 동반자의 관계로 중시하는 개념으로서 보완 발전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공검지 생태관광이 지향해야 할 환경적, 사회경제적, 교육적 가치에 입각하여 공검지 생태관광 개발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을 중시하고 자연에 바탕을 둔 생태 지향적 관광이다. 생태관광은 자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자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광으로 환경과 인간의 상호공존을 도모하면서 자연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상품이다. 따라서 공검지를 생태지향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환경적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관광활동의 대상, 방법, 규모 등을 규정한에 있어 최소규모의 관광인원으로 제한해야 하는 것이 1차 요건이 된다(Diamantis, 1998).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활동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한번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이다. 공검지가 갖는 경관과 전설, 민요, 역사적 사건 모두가 공검지의 관광자원이 되며 그러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계승하며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 효과적인 생태관광이 실현될 수 있다. 생태관광의 대상지인 공검지에 환경친화적인 관광시설을 도입하고 환경해설 및 환경교육 등 교육적 요소를 강화한다.

이때 우수한 관광자원을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공급자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관광자를 대상으로 수요자중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등 이원적접근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은 관광개발 대

상의 환경과 문화에 익숙하여 문화자원의 전승에 있어 가장 적합한 교육자이다.

셋째, 지역중심성은 관광활동의 혜택이 지역에 미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생태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소득,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경제의 편익 제공을 중점화한다. 관광개발로 인해 지역의 문화, 환경 및 정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공검지는 이미 국책사업을 통해 적절한 범위의 물적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므로 추진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검지의 역사 및 생태, 역사·문화자원의 가치

1. 역사자원의 가치

공검지는 농경문화의 발상지이며, 최적의 자연 조건을 이용한 저수지로 둑의 길이는 430m, 둘레는 8.68km, 수심 5.6m의 규모로 추정되며(권태을 등, 1995), '체천의 의림지', '김제 벽골제'와 더불어 삼한시대의 대표적 3대 저수지로 알려져 있다. 특히 농사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관개면적은 267.2정보로서 조선시대 각 제언의 관개면적 평균치가 "26결"이었으며, 관개능력이 있는 논은 전체 논면적의 6/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³⁾는 점을 감안하면 공검지로 인해 혜택을 입는 농경지의 규모가 매우 광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공검지의 위용은 '뽕은 콩 한 되를 하나씩 먹으며 못가를 돌아도 콩이 모자란다'는 속전과 '못이 많기로는 대개 남방이 가장 성한데 그 크기로는 공검과 견줄 만한 것은 없다'⁴⁾라는 역사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으며, '무수한 어선이 錦繡 가운데 떴네'⁵⁾라는 시에서 나타났듯 19세기 말 까지도 영남 제1의 호수로 그 명성을 유지해 왔다.

공검지에 관한 최초 문헌기록은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⁶⁾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나 최초 축제의 기록은 알 수 없고 1195년(명종 25)에 상주사록 최정빈에 의해 옛터대로 중수하였고 1897~1906년 총신 이채연의 건의에 따라 못 둑을 헐고 논으

표 5. 3대 저수지 비교

	상주 공검지	제천 의림지	김제 벽골제
종목	시도 기념물 제121호	명승 제20호	사적 제111호
명칭	상주공검지(尙州 恭儉池)	제천 의림지와 제림	김제 벽골제비 및 제방
분류	유적건조물/산업생산/ 농업/관개시설	자연유산/명승/ 문화경관/조망경관	유적건조물/산업생산/ 농업/관개시설
수량/면적	14,716㎡	211,038㎡(지정구역)	187,473㎡
지정일	1997.03.17	2006.12.04	1963.01.21
소재지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199일원	충북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외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송리 119
시대	삼한시대(추정)	삼한시대	삼국시대
소유자	국유	국유,공유,사유	국유, 사유
관리자	상주시장 외	출북 제천시	김제시

로 만들어 겨우 5만 여 평만 남게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채연은 광무개혁(光武改革, 1897~1904) 단행시 전결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설치된 양지아문(量地衙門)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검지의 토지도 양전을 실시하고 토지문권을 발급하면서 공검지가 폐허가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⁷⁾

더구나 공검수리조합에 의해 1959년 12월 31일 오택저수지(공갈못 서남의 대 수원지)가 완공되어 공검지의 효용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주민들은 완전 경지화 또는 일부라도 보존하자는 의견으로 대립하기에 이르렀고, 1964년 결국 2천여평만 남기로 결정하였다. 1968년 함창농지개량조합에서 ‘공갈못 옛터’비를 세워 겨우 역사적 현장을 알게 했을 뿐이다.

1993년 뒤늦게 공검지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됨

으로써 상주군에서 연못을 조성하였으며, 1997년 9월 29일 문화재로 지정, 2010년 현재 추가적인 복원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공검지의 담수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가 없어 측정이 어려우나 비좌인 우복 정경세 신도비(愚伏鄭經世神道碑)의 목 위치까지 담수되었다⁹⁾는 전설에 의거 같은 위치의 해발높이에 의한 지형도(1/5,000)의 등고선에 따라 담수 구역을 추정한 결과 <그림 2>와 같으며, 이때 담수구역 약 1,900,000㎡, 둘레 13,000m 정도이다. 이와 같은 저수지가 일제강점기때 이르러서는 담수면적 약 185,000㎡ 둘레 1,630m 정도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한편, 1932년 8월 2일 동아일보에 게재된 공검지의 사진<그림 3>을 보면 공검지가 ‘공갈지’로 기록되어 있고 4대 저수지중의 하나로 소개되어 있으며 공검지 내에서 낚시와 뱃놀이를 즐기고 있는 장면이다.

표 6. 공검지 변천사

연 도	내 용
1195년	사록 최정빈이 개축
1593년 8월	정기룡장군이 못둑을 터서 고기를 잡음
1898년	영친왕궁에서 논으로 만들
1928년	경북선 철도 부설로 축소
1932년	저수지 면적 44,611㎡(13,495평)로 축소, 5천원 이상 14년 연부상환으로 경매 개시 ⁸⁾
1964년	6,612㎡(2,000여 평) 남기고 나머지 개인에게 불하(1959년 12월 31일 오택저수지 준공)
1993년	13,018㎡(3,938평), 수심 3~4m 로 복원
2004~2009년	124,905㎡(37,784평) 연꽃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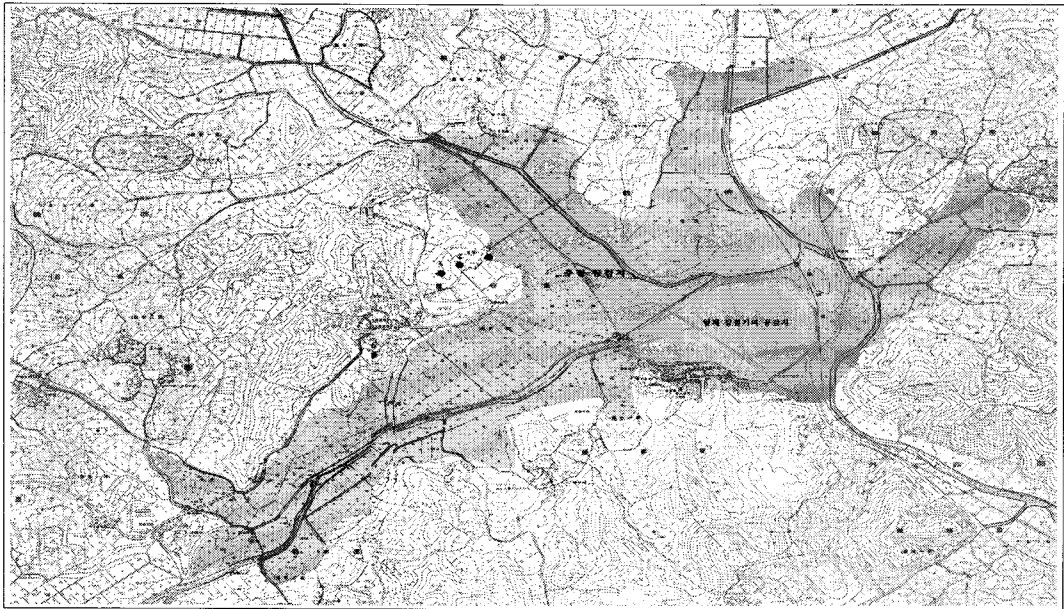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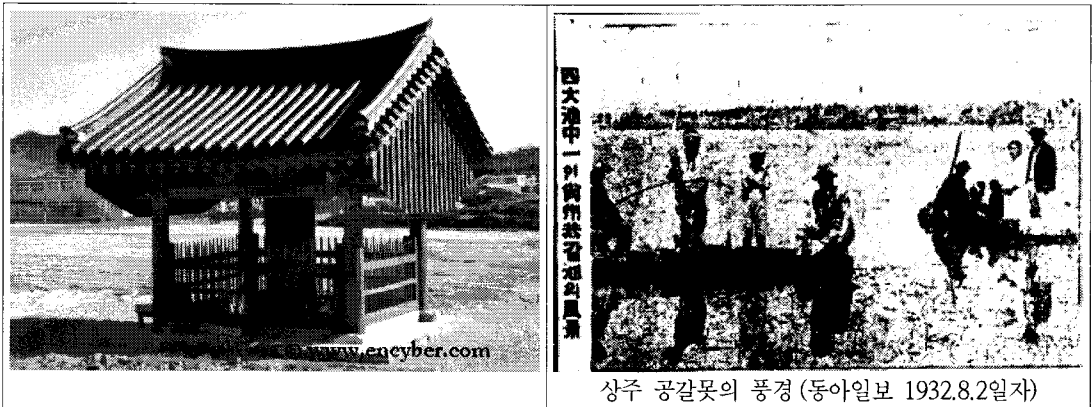


그림 2. 공검지 담수 예상도



상주 공갈못의 풍경 (동아일보 1932.8.2일자)

그림 3. 우복 정경세 신도비 / 동아일보 기사

2. 생태자원의 가치

지금까지 공검지의 생태자원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바가 없지만, 최근 공검지의 농경문화 및 논습지의 가치와 우수성을 인정하고 람사르논습지 등재와 한국논습지생태관 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박희천, 2009)들이 시도된바 있다. 그 결과 공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논습지생태관 건립은 현재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었고 향후 공검지 복원사업과 연계하여 생태, 역사, 문화의

복합적 관광개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검지의 생태자원인 연꽃은 문화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채련요를 탄생시킨 배경이 될 만큼 다양한 종류의 연꽃이 피어 경관을 이루고 있으며 매년 7월말 연꽃이 만개할 무렵에는 연꽃문화제가 개최되고 있다.

한편, 공검지 주변에는 주요 생태자원이 산재되어 있다. 이들 자원들은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보존상태가 우수한 것들이다. 물이 풍부하여 오대지의 물이 마르



그림 4. 공검지 전경

면 우리나라의 물이 다 마른다는 속설이 있을 만큼 수량이 풍부한 오택저수지는 1959년 12월 31일 공검수리조합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공검지의 뿌리에 해당된다. 약 33만평 규모에 붕어, 잉어, 가물치, 모래무지 등 민물 어류종이 풍부하며, 2007년 한국농촌공사가 선정한 100대 저수지 중의 하나로서 경치가 좋기로 이름이 나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 방문하는 곳이다.

한편, 공검면 중소리의 석회암동굴, 역곡리의 오봉산 봉화대, 부곡리의 온천수는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생태 그대로의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들이다. 공검면 역곡리의 오봉산은 봉우리가 다섯 개가 있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으며, 기우단이 있었고 산의 중허리에 고려가야국의 왕궁터였던 남산고성과 조선시대의 성산 봉수대 터가 남아 있다. 남산고성은 1천 206m의 외성과 940m 내성이 존재했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고, 산 전체에는 고분군이 산재해 있으나 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대부분 도굴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3. 역사 문화자원의 가치

1) 농경문화의 발상지

공검지는 고대 관개용 수리시설의 축제를 통한 농업발전의 기념비적 가치를 가지며 농경문화를 꽃피운 발상지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농사중에서도 특히 벼농사에는 물이 절대적인 요소이다. 우리나라의 열대몬순형의 특징은 여름에 비가 많은 반면 그 외의 계절에는 건조한 기후적 특징으로 인해 우기에 물을 저장하여 건기의 농사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개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농사의 필수 요건 요건이다. 상주는 공검지의 축조를 통한 선진 기술력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곡창지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됨으로써 농경문화가 번창했었던 것이다.

2) 고대 저수지 축조법의 연구가치

농경시대는 농사기술 뿐만 아니라 관개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조선시대의 제언 축조방법은 원시적이고 기술이 유치하여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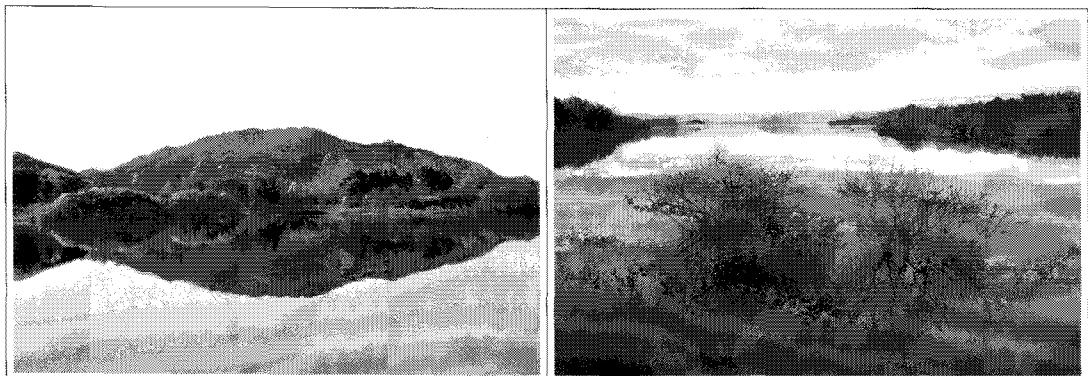


그림 5. 오택저수지 전경

언이 충분히 발달되지 못했으며,¹⁰⁾ 그나마 대체로 산곡협간에 제방을 수축하여 저수한 형태이며 때로는 평지 중에서 약간 높은 곳을 파서 만들기도 하였다.

2008년 공검지 정비를 위한 제방성토공사 과정에서 저수지 축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부재¹¹⁾의 발견은 공검지의 뛰어난 재인 축조 기술의 우수성을 밝혀 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그림 6), 고대의 저수지 축조에 사용된 재료와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자료로서도 우수하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공검지 축제 연도에 대한 의구심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이다.

3) 문화적 가치

공검지를 중심으로 풍성했던 농경문화는 근대화 과정에서 급격히 쇠퇴하여 거의 사라지고 일부가 전승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공검지와 관련된 민요, 채련요, 한시 및 전설이 남아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주민요는 농경을 주업으로 삼는 상주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수성이 기초가 되어 형성된 향토성 짙은 노래이다. 농사짓는 과정의 애환과 기쁨을 담은 모내기 노래는 농사일의 시작과 어우러진 노동요로서 모내기노래, 논매기노래(애벌논매기, 두벌논매기), 타작노래(자르개타작, 도리깨타작)의 세부분으로 짜여져 있다.

공검지의 연꽃과 경관이 배경이 되어 생성된 노래인 '채련요'는 상주민요의 역사성이 가장 깊은 대표적인 노래이다. 공검지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특수성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서민들이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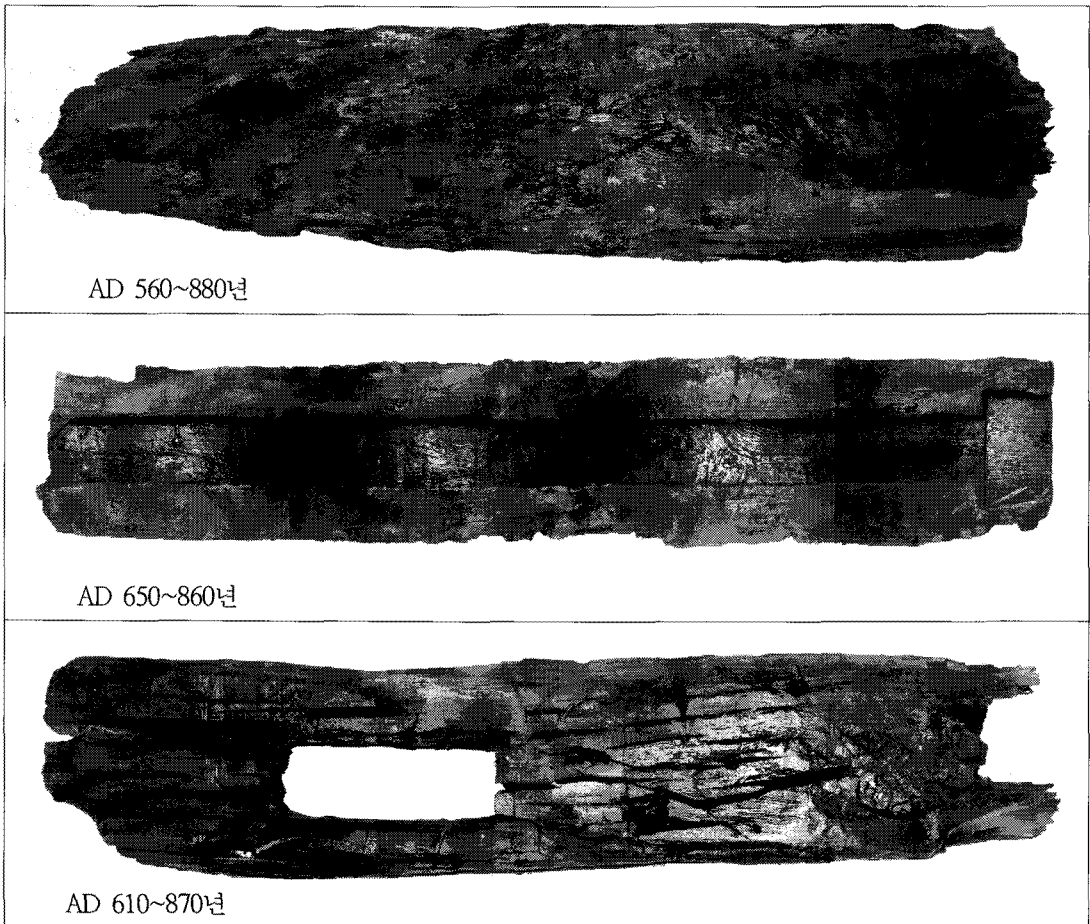


그림 6. 공검지 출토 목부재 연대측정 결과

표 7. 공검지의 문화 자원

구분	명칭	내용
민요	채련요 (연밥 따는 노래)	상주함창 공갈못에/연밥따는 저 처녀야/연밥줄밥 내따주께/이내품에 잡자주 소/잡자기는 어렵잖소/연밥따기 늦어가오
	논매기노래 ¹²⁾	에이오 방해야 에이오 방해야/이 방아가 누구 방안가 에이오 방해야/강태공의 조작방아 에이오 방해야 강태공은 어디가고 에이오 방해야/방아만 돌아난다 에이오 방해야
	타작노래	에이 주야산이 또 들어간다/에하 에하 다리라 에하 어깨도 에하 질숙 에하/허리도 에하 주척 에하/힘써 에하 다리라 에하
전설	인주설화(人柱) 매아설화(埋兒)	-공갈못독을 쌓을 때 사람(스님)을 말뚝삼아 독을 완성하였다 -공갈못독을 쌓을 때 ‘공갈’이란 아이를 묻었다
	쌍룡의 사랑싸움 공갈못 지킴이	-공검지에 사는 용들의 싸움 -공갈못 지킴이를 건드려 공갈못이 메워졌다
	공갈못 구경설화	죽어 저승에 가도 공갈못을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이승으로 내 쫓는다
한시	조선시대 공검지 관련 한시 60여편 발굴됨 (고려시대 이전의 시문은 발견되지 않고 있음)	

출처: 권태을·김기탁·김철수(1995), 「공검지」, 상주문화원; 박찬선(2007), 상주문화원 발채 정리

에서 체험한 희노애락을 담고 있어 민중의 소박한 시적 정서를 알 수 있다. 공검지의 뛰어난 경관은 시인들의 시적대상이 되어 다양한 한시와 시를 남겼다. 한시의 내용적 특징을 보면, 공검지의 순수 경관을 노래하거나, 조선말기에는 공검지에다 망국의 한을 풀기도 하였으며, 만남과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또한 공검지에는 다양한 전설이 전승되고 있다. 전설은 신화와 민담과 달리 증거물을 바탕으로 더 한층 사실성을 지니는 특징이 있다. 공검지에 대한 고대역사가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설을 통하여 공검지의 역사적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성을 추적함으로써 공검지의 역사성을 복원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공검지의 전설은 다양하다. 못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된 매아, 인주설화, 물을 다스리고 관장한다고 믿었던 상상의 신물 ‘용’에 얽힌 사랑싸움 이야기, 농사일과 관련해서 생겨 난 ‘용갈이, 소갈이’ 설화를 비롯하여, 공검지의 규모, 지형, 경관에 얽힌 설화, 공검지의 흥쇠와 관련된 각종 설화가 있다(표 7).

4) 고령가야국의 역사적 가치

공검지 주변의 유적은 청동기시대의 부원동 지석묘군, 중덕동의 입석, 관동리와 남적동의 무문토 기산토기가 있고 원삼국시대는 엄암리 토광묘, 금

혼리 이부곡토성이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신흥리, 이안리, 부곡리, 연봉리 고분군이 있다.

공검지 북쪽에 위치한 이안면 이안리에는 고령 가야국과 관련된 지명인 송덕산이 있고 공검지의 북쪽 끝자락과 연결되어 있는 신흥리 고분군과 남산고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안천을 건너 함창읍 증촌리에는 고령가야국의 왕릉과 왕비릉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원삼국시대 전후에 고령가야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던 지역으로 보이는 곳이다.

낙동강과 넓은 곡창지대를 끼고 고대국가의 번승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유물들은 방치되고 공검지와 마찬가지로 훼손되어 있어 시급히 보존·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IV. 공검지 논습지 생태관광 자원화 방안

1. 논습지 생태관광 거점화

상품의 경쟁력은 상품의 차별화를 통해 매력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품차별화를 위한 주요방향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지역특화이고 이러한 지역특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장소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장소성은 다른 지역이 쉽게 따라하거나 복제할 수 없고 다른 지역에서 구할 수

없을 때 경쟁력이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김생수, 2007). 장소성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장소성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이미지를 통해 장소의 매력도를 높이는 장소마케팅이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이에 대해 많이 논의되어 왔다. 장소마케팅은 단순히 장소를 판매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체성을 갖춘 지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역을 찾아오는 구매자의 욕구와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 외부자본을 끌어들이 것인가 등을 고려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관광개발에서는 차별화된 장소이미지구축, 지역에 고유한 문화적 자산 활용,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입각한 내발적 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을 강조해 왔다(이정훈, 2005).

공검지의 장소마케팅의 방향은 공검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검지를 생태관광의 거점 또는 대표성 있는 공간으로 선정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한 마케팅 활동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공검지의 상징적 이미지는 “상주 함창 →가장 오래된 저수지→농경문화의 발상지→연꽃→채련요”의 연결고리를 통해 생태관광지로서의 장소성을 형성한다.

현재 공검지는 복원 중에 있으나 원래가치로 완전 회복은 어렵고 공검지의 순수한 생태관광 콘텐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며 지역의 문화 생태자원과의 연계를 기반으로 생태지향적 관광 활동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공검지가 타 지역의 생태관광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장소성 획득은 공검지의 농경문화와 논습지 생태체험관 및 민요마을¹³⁾과의 삼각 네트워크를 통해 논습지 생태관광으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있다.

현재 추진중인 논습지 생태체험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건립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협약에서 채택한 “논습지결의안”은 논이 식량을 생산하는 땅일 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인식 전환을 이끌어 냈으며, 논습지에 대한 중요성과 마땅히 보존해야 할 생태자원으로 부각되었다. 특히 논습지는 논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농경문화와 그 맥이 닿아 있다. 따라서 공검지와 논습지생태체험관, 민요마을을 네트워크하여 논습지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농경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때 프로그램은 방문객에 따라 차별화 되어야 한다. 방문객의 연령별, 성별, 직업별 특성에 적합하고 방문시기와 기간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적 목적수행과 체험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방법과 시설을 구비하여 논습지의 교육적 효과와 생태관광의 효과를 배가시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생태관내에는 논습지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다양한 시청각적 자료, 공검지의 역사문화적 가치, 공검지의 소멸과 복원과정, 논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종 도감 등의 내용을 전시하도록 한다. 생태관은 논농사학습과 체험, 논습지의 중요성, 농경문화 등을 체험하기 위한 학습장소로 제공하고 관광자원화하여 녹색성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림 7. 민요보존회관 및 모심기노래 시연 모습

2. 공검지 고령가야국 역사여행

최근 우리나라 고대국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야는 영남지방을 중심 무대로 하여 앞선 기술과 문화를 자랑하며 한 시대를 이끌었지만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러나 가야의 존재는 엄연한 우리의 역사였고 늦게나마 역사인식을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지금까지 가야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은 역사서는 『삼국유사』의 「가락국기(駕洛國記)」와 「오가야조(五伽耶條)」인데 이 삼국유사의 6가야는 김해의 금관가야(金官伽耶), 함안의 아라가야(阿羅伽耶), 고령의 대가야(大伽耶), 상주 함창의 고령가야(古寧伽耶), 성주의 성산가야(星山伽耶) <혹은 벽진가야(碧珍伽耶)>, 고성의 소가야(小伽耶) 및 창녕의 비화가야(非火伽耶) 등이다.

이들 삼국유사에 나오는 6가야 중 낙동강 유역의 가장 상류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함창의 고령가야로서, 고령가야의 태조왕릉과 왕비릉으로 추정하는 고분이 현재까지 보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주변에도 봉토분을 포함하는 고분군이 여러 군데 남아 있어 고대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고령가야국 이야기를 소재로 한 역사여행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태조왕릉과 왕비릉의 존재 외에 스토리텔링의 소재가 빈약하다. 시기별로 흠어진 유물과 전설 등을 수집하여 이야기의 소재로 삼아 고령가야사를 복원시키고 스토리텔링하여 쉽

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세인의 관심과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는 유적 유물들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주민은 가장 밀접하게 이 지역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태관광, 역사여행의 실행 및 관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생력있는 지역만들기의 가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3. 생태관광 자원의 네트워크

논습지 생태관광의 거점으로서 공검지와 논습지 생태관 활용과 고령가야국의 역사여행을 통해 장소성을 확보하는 한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프로젝트의 사업과 적극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개발사업의 현황은 <표 8>과 같다.

생태관광형 네트워크는 공검지→논습지생태관→민요마을→낙동강생물자원관과 연계하여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다음으로 고령가야를 중심으로 한 역사관광형 네트워크는 고령가야 태조릉→남산고성→상주박물관→낙동강역사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과 연계하여 낙동강 나룻배를 타고 고대 역사기행을 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셋째, 전국 최고의 보유율을 자랑하는 자전거를 활용하여 낙동강 자전거 투어로드 프로그램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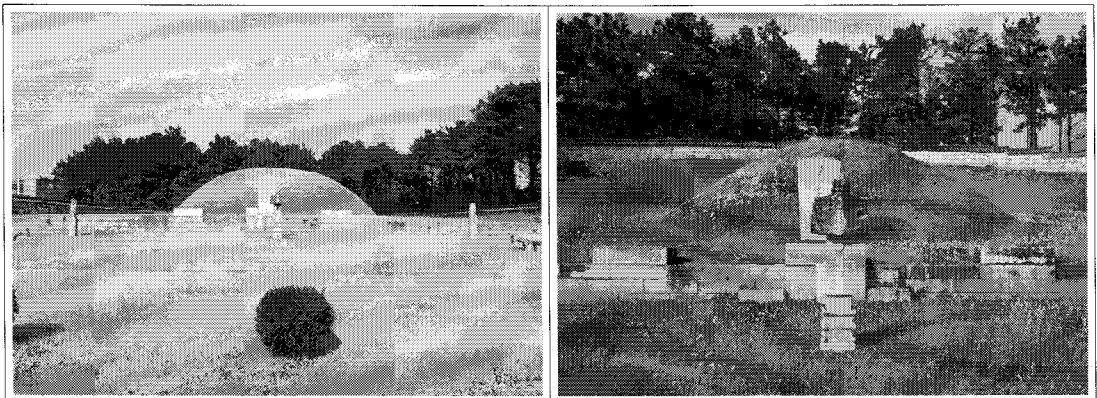


그림 8. 고령가야국 태조왕릉(왼쪽) 및 왕비릉

표 8.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

사업명	사업기간	비고
낙동강 생물자원관	2012년 개관 예정	상주시 도남동
자전거나라 조성사업	2011~2016년 완공 예정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일원
낙동강 역사 문화 생태체험 특화단지 조성사업	2006~2015년 완공예정	경천대 일원
낙동강 녹색벨트 조성사업	낙동강살리기 사업일환	

출처: 상주시 문화관광과(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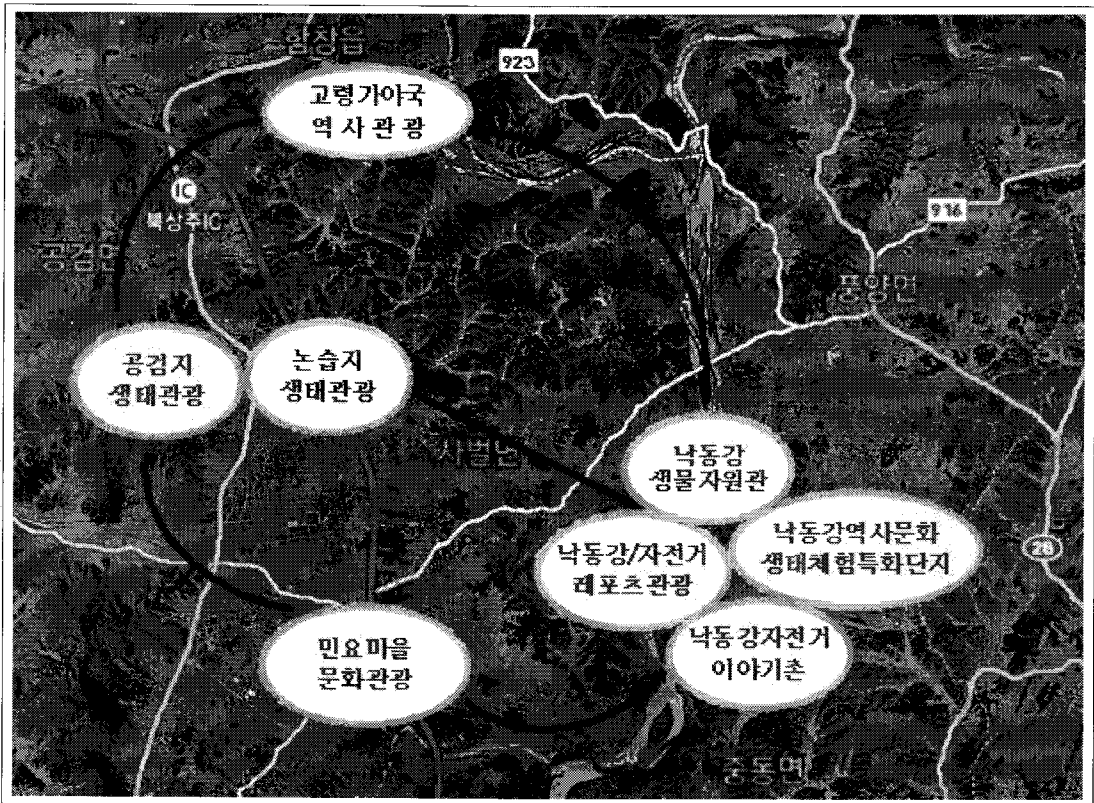


그림 9. 공검지와 낙동강프로젝트사업 네트워크 안

발, 낙동강 자전거 나라 이야기촌과 연계하여 자전거 관련 레포츠관광이 가능하다.

넷째, 전통 농경문화 체험을 위한 좀더 깊이 있는 체험을 위해서는 공검지와 민요마을을 연계하여 채련요, 농요, 민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형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

관광상품의 개발은 뚜렷한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문제와 보완점을 해결하여 완성도를 높여 가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및 제언

본 연구는 상주 공검지의 논습지 생태 및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개발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시도의 일부로서 시작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관점은 공검지를 논습지 생태관광의 거점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성 확보와 그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요컨대 공검지를 중요한 생태관광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생태지향적 개발방향을 모색하였다. 또한

공검지의 생태관광 거점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농경문화와 논습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장소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의 생태자원과 네트워크를 시도하였다. 공검지는 협의의 순수 생태관광의 형태보다는 광의의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의 형태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공검지는 논습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관광, 고령 가야국의 역사체험을 위한 역사여행, 자연거를 활용한 레프츠관광, 민요마을의 전통 민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의 유형 등으로 세분하여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는 장소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활용 가치가 매우 높았다.

향후 공검지가 논습지 생태관광을 위한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습지 해설 및 생태관광 전문안내자의 육성이다. 안내자는 민감한 생태자원의 관리는 물론이고 관광객 관리 역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정수준의 전문지식은 물론이고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력의 확보는 성공적인 생태관광관리를 좌우하는 잣대가 된다. 분야별 전문 안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테마별 강의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내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유적지별 테마별 자원봉사 시스템의 구축하여 역사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태관광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도 필요하다. 이 조직체는 공검지 지역의 주민이 중심이 된 법인체 혹은 독립적 구성체의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의 요구수용, 자원관리, 보존의 측면에서 더욱 용이하기 때문이다. 보존과 활용에 관한 정보와 인적 물리적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지역특수성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의 작은 관광사업체를 조직하여 생태관광 여행상품을 기획·운영·판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 개발을 통한 이익이 지역과 주민에게 전가되어 지역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검지는 연꽃을 포함한 다양한 수생식물의 전시, 논생물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역사 문화 및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논농업 종합 생태 테마공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주

- 1)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점차 사라져 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카스피 해 남부 연안에 있는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람사르 협약은 1975년 12월 12일 공식 발효된 국제협약으로 최근에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수자원 및 어족 자원관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핵심 의제로 채택해 이행하고 있다. 현재 158개국이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7월 28일 101번째로 가입했으며, 현재 가입 때 한 곳 이상의 습지를 람사르 습지 목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강원도 양구군 대암산 용늪을 신청해 지정되었다. 2008년 현재, 우포늪을 포함한 8개 람사르 습지를 등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1,743개의 습지가 등록되어 있다.
- 2) 2010.10.18~29, 제10회 생물다양성협약총회(CBDC OPIO),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
- 3) 경상도속찬지리지, 예종대 편간.
- 4) 홍귀달, 1490, 명삼정기(名三亭記). 기타의 자료; 남방의 못 가운데서는 최대(동국문헌비고상); 남국에선 이 못이 가장 장하다 (홍필공의 시); 서남쪽 십리 크기의 만경창과다(이경유의 시)
- 5) 高聖謙(1810~1886), 儉湖觀魚.
- 6) 세종실록지리지(1454), 큰 못이 하나 있는데 공검지이다. 주(州) 북쪽 함창 경계 가운데에 있으며 명종 25년 을묘에 사록 최경진이 옛터에 따라 쌓았는데 길이가 860보, 너비가 800보이다. 관개면적은 260결이다.
- 7) 신채호(조선상고사, 1931년)는 가라 여섯나라 건설조(條)에서 「‘고령가라’이니, 지금의 함창으로 또한 앞대를 막아 가라를 만들고 이두자로 고령이라 기록한 것인데 ‘고령가라’가 와전하여 ‘공갈’이 되었으니 지금의 ‘공갈못’이 그 자리이다. 여섯 가라 고적 중 오직 이것 하나가 전해져 그 물에는 연꽃, 연잎이 오히려 수천년 전의 풍경을 말하는 듯하더니, 이조 광무 시절에 충신 이채연이 논을 만들려고 그 독을 헐어 아주 폐허가 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 8) 동아일보 1932.12.12일자
- 9) 공검면 부곡리 27-3번지, 지방유형문화재 제321호, 1758년 건립.
- 10) 예종, 경상도속찬지리지.
- 11) 출토된 목부재의 수종은 소나무, 밤나무, 졸참나무류이며, 최저 64년부터 최고 137년의 연륜을 보임.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결과 AD655년~AD695년의 결과치가 나왔다;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상주 공검지 출토 목재의 수종, 연대 및 방사성탄소연

- 대분석보고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연구원(2010.6)
- 1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13) 상주시 초산동 상주 민요마을의 “초산민요회”는 1987년 경상북도무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된 ‘상주민요’를 전승하는 마을이다. 상주민요는 모심기소리·논매기소리·타작소리로 구성되는 노동요로, 마을 주민들은 상주민요보존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며 상주민요를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한다.

문헌

- 곽행구·김농오·김지인, 2008, 해양자원의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전남 갯벌 및 어촌체험마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2(2), 227-243.
- 구호·김농오, 2009, 신안군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에코투어리즘 적지분석, 관광연구저널, 23(1), 267-278.
- 권태을·김기탁·김철수, 1995, 공검지, 상주문화원.
- 김기탁, 1994, 상주 공갈못 민요소고, 상주문화연구, pp.61-78.
- 김대희·이채식, 200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생태적 접근, 한국농촌지도학회지, 11(1), 161-174.
- 김생수, 2007,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장소마케팅 전략, 지방행정연구, 21(1), 208-210.
- 김선희, 2003, 한국의 생태관광 개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관광정보학회, 관광정보연구14, 49-69.
- 김성진, 2002, 생태관광 진흥방안 연구(기본연구 2002-03),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83-84.
- 김영미·김성섭·송영석, 2007, 생태관광축제로서 함평나비축제의 상품개발과정 성공요인 및 평가, 관광연구저널, 21(3), 459-484.
- 김의숙·이창식, 2008, 문화콘텐츠와 스토리텔링, 도서출판 역락.
- 김진·고동환, 2011, 생태관광활동 참여에 따른 관광환경 태도의 변화-우포늪 습지 방문객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 39(1), 56-64.
- 김홍균, 2002, 갯벌의 보전 및 관리; 습지보전법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69, 103-130.
- 노용호·임채관·박희천, 2010, 우포늪 따오기 증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한국지역지리학회, 16(4), 417-427.
- 문창현, 2007, 생태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학회. 지역사회연구, 15(1), 71-94.
- 문창현, 2009, 금강 철새도래지 생태관광객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생태학회, 23(5), 460-470.
- 박찬선, 2007, 상주이야기, 상주문화원.
- 박희천, 2009, 상주공검지 람사르 논습지로 재탄생은 가능한가, 2009낙동강환경포럼, 경북대학교, 5-14.
- 서태양, 2006, 문화관광론, 대왕사.
- 송경언, 2005, 장소마케팅에 있어 콘텐츠의 역사성 네트워크와 문화 생태지향적 관광개발, 지리학연구, 39(2), 207-210.
- 여영숙, 2009,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으로서 생태관광의 전망-순천만 갈대축제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3(4), 383-401.
- 오남현, 2008, 울진 금강송 생태숲의 이용자 행태 분석과 개선방안, 한국환경생태학회, 22(3), 249-259.
- 오민재·이소연, 2008, 여행목적과 관광객 만족에 의한 생태관광객 동기 세분화, 관광연구저널, 22(1), 277-290.
- 오정준, 2003,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38(4), 610-613.
- 이경은, 2009,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방안연구, 사회과학연구, 33(2), 309-337.
- 이정훈, 2005, 장소의 상징적 이미지와 문화적 활동의 영역적 체계에 입각한 문화관광개발의 개념적 모형 정립, 한국지역지리학회, 11(5), 405-425.
- 이충기·김태균, 2011, CVM을 이용한 보령머드축제 생태관광자원의 경제적 가치평가, 관광연구저널 25(4), 129-144.
- 조진희·김수봉·김용범, 2004, 관광객의 환경의식이 생태관광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환경과학회지, 13(1), 2-3.
- 최정수, 2003, 생태관광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경제지리학회지, 6(1), 234-235.
- 최태광, 2009, 생태관광론, 백산출판사.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09, 상주 공검지 출토 목재의 수종, 연대 및 방사성탄소연대 분석 보

- 고서, 상주 문화관광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홍선기, 2009,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생태적 고찰, 도서문화, 33, 319-345.
환경부, 1997, 환경정보 59, 12-13
상주시 문화관광과 <http://sangju.go.kr>
환경부 <http://www.me.go.kr/>
동아일보 1932. 12. 12일자
<http://home.sunchon.ac.kr/~bioenvlab/data2/ham2/2-7.htm>
Al-Sayed, M. and Al-Langawi, A.(2003), Biological resources through ecotourism development,, *Journal of Arid Environments*, 54(1), 225-236.
Diamantis, D.(1998), Consumer behavior and ecotourism produ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5(2), 515-517.
Epler, W. M.(2002), *Ecotourism: Principles, Practieces and Policies for Sustainability*, UNEP.
Nevin, O. T. and Gilbers, B. K.(2005), Perceived risk, displacement and refuging in brown bears: positive impacts of ecotourism?, *Biological Conservation*, 121(4), 611-622.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1996, *Guidelines on Aid and Environment* (Guidelines for Aid Agencies for Improved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ropical and Sub-tropical Wetlands), 9
Williams, M., 1992, *WETLANDS A Threatend Landscape*, Blackwell.
- 교신 : 김연희, 742-711 경북 상주시 가장동 386번지 경북대학교 생태환경관광학부 생태관광전공(이메일: agria97@knu.ac.kr, 전화:054-530-1381)
Correspondence : Kim, Yeanhee, School of Ecological Environment & Tourism, Department of Ecotourism,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386, Gajang-dong, Sangju-city, Gyeongbuk, 742-711, Korea(e-mail: agria97@knu.ac.kr, Phone:+82-54-530-1381)
- (접수: 2011.4.10, 수정: 2011.5.2, 채택: 2011.6.13)